

배포 일시

2025. 8. 26. (화)

담당자

즉시 보도 가능

진우성 사무국장 010-2017-0584

조서영 공보국장 010-5144-7585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 전국대학생위원회,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에 정책 질의 및 제언 전달
- 현장성, 개방성, 전문성 살린 1020세대 국민국감 실현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봉건우)가 8월 26일 화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과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차종관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자문위원, 강동엽 대구 청년단체 ‘윤슬’ 대표, 최재혁 민주청소년네트워크 위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진우성 사무국장과 오연지 수석대변인, 석근호 대변인이 참석했다.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총 7개 참여 단체는,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학생과 청소년, 나아가 국민들께서 피교육자 입장에서 느끼는 현안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직접 전달하는, 국민주권·국민국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최 단체들은 “이번 프로젝트는 1020세대가 국정감사라는 정부 견제·감시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관점으로 정책 질의와 제언을 전달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국회와 시민 사이 상호 신뢰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행동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미래세대의 참여로 증명하겠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년 진행될 수 있는 ‘미래세대 국민국감’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국민주권을 향한 첫걸음을 뗀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국감을 1020 미래세대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제안기간 운영, 멘토링 및 토론 세션과 아이디어 인튜베이팅 과정을 통해 현장성, 개방성, 전문성 있는 국감을 만들겠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020세대가 정치주체로서의 역량과 역할을 스스로 증명해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총학생회공동포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구 청년단체 ‘윤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가 함께한다.

붙임1. 기자회견 현장 사진

붙임2. 기자회견문 전문

붙임1 기자회견 현장 사진



▲ 발언하는 김영호 국회의원



▲ 발언하는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붙임2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국민주권을 향한 첫걸음을 뚫습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2025년 국정감사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국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중심은 우리 1020세대가 될 것입니다. 1020세대는 우리 대한국민의 미래세대, 대한민국의 미래 책임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치주체로서의 역량과 역할을 스스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그 시작,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는 국민주권, 국민국감 모델의 최초 시도입니다. 첫 시도인 만큼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책 현안과 의제에 대한 질의 및 제언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께 전달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 가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성 있는 국감’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1020세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이야기가 녹아들게 하겠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위한 국감,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모두 생생한 현장성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성별을 가리지 않고 여러 단체와 함께합니다. 당내 조직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총학생회공동포럼,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대구 청년단체 윤슬, 민주청소년네트워크와 같은 유관단체도 참여합니다.

다음으로, ‘개방성 있는 국감’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제안기간을 운영합니다. 8월 27일 수요일까지 전국대학생위원회 SNS에 있는 응답폼을 통해 국감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현안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대학 거버넌스 및 대학운영, 고등교육 정책, 지방대학 소멸,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등 교육위원회 관련 현안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전문성 있는 국감’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국감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심도 있는 멘토링 및 토론 세션을 진행하고, 세부 내용을 다듬는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안은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후속 조치로 당원 대상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는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간담회에서 공유된 최종 선정 아이디어에 대한 보완 의견을 수렴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루길 희망하는 그 밖의 의제들도 취합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보충 의견에 한정하여 협력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떤 지역,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여의도에만 갇혀 있지 않겠다던 지난 대통령선거 때의 다짐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킨 대한민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주권시대를 앞장서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는 1020 미래세대가 진정한 정치주체로서, 엄연한 주권자로서 스스로 역할을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가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된다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020 미래세대 국민국감」 프로젝트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치와 정책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주권자가 행동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1020세대와 같이 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